



오랜만에 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셨듯이, 저 또한 레슨과 가게를 잠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분주한 마음이었지만 개강예배에 성가대로 참여하는 열심도 내보았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성가대는 찬양이 좋다는 칭찬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셨듯이 제가 지휘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귀에 듣기 좋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영적 찬양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영성과 소리가 잘 조화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위해 발성, 지휘법 등과 더불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찬양에 대한 배움도 기대해 봅니다. (시드니 새순 장로교회 이은경)

말 말 말!!!

작년에 주차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편안히 주차할 수 있었어요. (부평 화랑교회 양희수)

작년에 아쉬웠던 점 중에 컸던 것이 모든 리딩 세션에 들어가서 힘들었어요. 필요 없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나갈 수 없었고요. 메시아 연주법을 전원이 다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했어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좋은 합창단 연주가 많았으면 싶었는데 그 점도 아쉬웠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깜놀입니다. 다 됐어요. 정말 좋아요. 다 돼서 너무 좋고 깜짝 놀랐어요. (시드니 새빛 장로교회 김정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개강 예배를 꼭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빈자리가 많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개강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획기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샘 교회 강원호)

세미나 참석의 제일 큰 이유가 새 성가들을 많이 접해보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그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아내와 함께 왔기에 나누어 들어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순천 서부교회 김영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 100:1)